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창 5:1-32)

일상 나눔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 보세요.

찬송 하기 찬송가 183장, “빈 들에 마른 풀같이”

본문 읽기 창세기 5:1-32

오늘 본문은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생명의 족보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1. 셋의 후손: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형상

창 5:1은 “아담의 계보(톨레돏)를 적은 책”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톨레돏은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때마다 등장합니다. 이 족보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본문 3절은 첫 사람 아담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가 말씀합니다(창 1:26-27).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을 따라 셋을 낳습니다. 비록 죄로 훼손되었지만, 셋의 자손이 하나님의 형상을 잇는 ‘적통’ 계승자임을 보여줍니다.

이 족보에서 가인의 후손은 제외됩니다. 셋의 후손들은 누구를 낳고 이후 얼마를 더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기록하지만, 가인의 족보는 수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을 피할 순 없었지만,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명과 번성의 복을 누립니다. 흥미롭게도,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사이에 에녹과 라멕같은 동명이인들이 등장합니다. 한쪽은 세상적으로 잘나가고, 다른 한쪽은 별 존재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증폭시킨 악을 구속(redeem)하고 세상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 족보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를 거쳐 (홍수 후 다시 10대 후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고 땅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힘 있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세상의 적통 계승자입니다(요일 5:4-5).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빈약한 세상의 상상력에 우리가 맞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믿음의 자손이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에녹과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생명의 사람

셋의 족보에 그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총 몇 세를 살고 죽었다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벗어난 예외가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므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21-24절).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옮기셨습니다. 1)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어가는 의인들이 영생을 상속받을 것을 미리 보여준 예시입니다. 2)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연수가 365년입니다. 일상 속에서 24시간, 365일 내내 주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히 11:5).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세상과 죄를 거스르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을 삶의 부가물로 여기고 주변부로 밀쳐내면 세상을 거스르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매일의 생각과 선택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의 생각을 분별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은 노아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를 낳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인 노동의 수고에 대해 주님의 위로를 고대하는 기도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며 기른 자녀가 세상의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에녹과 노아 모두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력으로 세상을 거스릅니다. 반면,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시대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세상에 저항하는 힘이 영적 생명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은 불안과 두려움과 욕심을 이기고 세상을 거스르는 생명을 주십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핵심은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영적 생명력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부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성령과 생명의 지배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종하는 생각과 행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안의 어둠과 싸우는 법을 배운 아이들이, 커서도 세상의 어둠과 싸워 이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생명을 이어가고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대를 이어 생명을 전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 포인트

1. 셋의 족보에서 강조되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1-3절)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1.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2. 셋의 족보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창 10:1, 11:10-26, 마 1:1) 결국,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요일 5:4-5)

- [창 10:1]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창 11:10-26] 10.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 세 곧 홍수 후 이 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26.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마 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요일 5:4-5]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3.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연수가 365년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창 5:21-23, 히 11:5)

- [창 5:21-23] 21.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22.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 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히 11: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4. 노아를 낳고 아버지 라멕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29절)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29.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합심 기도

말씀을 기억하며 / 후원 선교사님과 미지립교회를 위해 / 다락방과 교회를 위해

모임 마무리

광고 /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복” / 주기도문